

25. 품종 및 수확시기가 사초용 호밀의 생산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

이병생 · 김종덕 · 권찬호 · 정길웅*

연암축산원에대학, 단국대학교*

본 시험은 호밀(*Secale cereale* L.)의 정부장려품종 중에서 축산농가가 많이 재배 이용하는 Koolgrazer, Homill 22 및 Danko 품종의 숙기 평가와 이들 품종의 수확시기(조기수확=4월 20일, 중기수확=4월 26일, 만기수확=5월 4일)에 따른 사초수량과 품질을 비교하였다. 호밀의 출수시작일은 Koolgrazer는 4월 10일, Homill 22는 4월 15일, Danko는 4월 23일에 출수하였다. 수확시 건물률은 Koolgrazer는 20.6%, Homill 22는 18.5%, Danko는 16.0%였다. 출수시작일과 수확시 건물률을 볼 때 Koolgrazer는 조생종, Homill 22는 중생종, Danko는 만생종으로 평가되었다. 품종간의 건물수량은 조생종인 Koolgrazer는 12,816kg/ha로 가장 높았으며, Homill 22와 Danko는 각각 12,395 및 12,051kg/ha였다. 수확시기간의 건물률 및 건물수량의 비교에서는 조기수확(4월 20일)에서는 건물률은 15.6%, 건물수량은 11,180kg/ha였으며, 4월 26일 중기 수확에서는 건물률은 18.9%, 건물수량은 13,180kg/ha였다. 한편 5월 4일 만기수확에서는 건물률은 20.6%, 건물수량은 12,916kg/ha였다. 호밀의 조단백질 함량은 품종간에는 만생종이 가장 높았으며, 수확시기간에는 조기수확이 중·만기 수확보다 높았다. NDF, ADF 및 ADL 함량에서는 품종은 숙기가 빠른 품종일수록 높았으며, 수확시기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높았고, 특히 수확중기와 후기사이에는 섬유소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다. 호밀의 소화율은 품종의 숙기가 늦어질수록 높았으며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았다.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시한 품종간에는 숙기 차이가 뚜렷하였으며, 출수시작일, 건물률 및 건물수량을 볼 때 호밀은 만생종보다 조생종 호밀이 생산 이용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. 그러나 호밀의 품질에서는 조생종보다 만생종이 우수하였다.

Key words : 호밀, 품종, 수확시기, 수량, 품질